

“강인한 제주 여성’ 신화 노동 가치 인정에 한계”

‘근현대 제주여성노동사...’
전분·직물 제조업 여성 등
기존 연구 소외 분야 살펴
“제주 경제 성장 기여에도
여성 노동은 더욱 주변화”

‘제주 여성의 노동’에 주목해 근현대 제주여성사 정립을 시도한 첫 연구 결과물이 나왔다. 제주여성이 축연구원이 펴낸 ‘근현대 제주여성 노동사 정립을 위한 기초연구’ (강경숙 진관환 문순덕 김준표 고민지) 보고서다.

이번 연구는 1차 산업(해녀, 농업)과 3차 산업(관광산업) 종사자

뿐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제조업 분야의 공장노동자와 자가 고용 형태의 자영업자의 노동 경험을 살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시간적 범위는 1876년 개항부터 2000년까지 120여 년으로 연구진은 이를 해방 이전 근대 제주 여성 노동의 양상(1887년~1944년), 해방 이후 과도기 제주 여성의 노동(1945년~1960년), 지역개발 시기 제주 여성 노동의 변화(1961년~2000년)로 구분했다.

이 중 제조업 분야의 여성 노동은 전분제조산업(전분공장)과 직물산업(한림수직사) 운영을 중심으로 들여다봤다. 대정, 한림 등 그곳에서 일했던 여성노동자 심층 면담 등을 통해 여성노동자의 역할과 그 당시 지역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전분공장 운영은 1950년대부터 고구마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활성화되었다. 1960년대에는 남제주군에만 36개의 전분공장이 있었는데 노동자의 성비는 남성 336명, 여성 829명으로 여성이 훨씬 많았다. 전분공장은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재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다. 여성들은 밤농사도 하면서 단기 근로 형태로 전분공장에 취업해 경제활동을 벌였다.

한림수직사로 대표되는 직물산업은 한림은 물론 제주시와 서귀포시 여성들에게 월수입을 안겼다. 방직공장과 같은 역할을 했던 한림수직사는 운영 초기인 1960년대 300명 정도의 여성노동자들이 옷을 짓고, 1970년대 초에는 스웨터를 짜서 납

품을 하는 사람만 명부 기준으로 700명이 넘었다. 한림수직사는 농촌 여성들의 단기 일자리를 만들었고 직조기술자를 양성했다.

연구진은 “산업화가 여성 지위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었으나 남성 중심적 개발정책 등으로 인해 제주 여성의 노동은 더욱 주변화 되었다”며 “경제활동참여율이 곧 여성 노동력의 지위 향상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다시 질문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 여성의 강인함”의 신화가 일상을 살아가는 제주 여성들을 소외시키고, 아울러 여성의 희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됨으로써 제주 여성의 노동과 삶의 가치를 인정하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희기자



아트랩와산 아트블랑켓의 ‘행운의 편지’ 전시. 관람 이후 마음에 드는 작품에 흔적을 남기고 원한다면 작가에게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새해 전시 관람객과 함께 만들어요”

예술공간 이아 슬로프 전시
작년 전시 연계 도민 참여작
아트랩와산의 ‘행운의 편지’
작품에 흔적 남기고 편지들

제주도민 등 관람객 참여로 만들어진 전시가 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제주시 원도심 예술공간 이아의 ‘2021-2022 공간 잇기 프로젝트-푸릿푸릿 이아’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스위스마을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스위스마을 안에 들어선 ‘아트랩와산’에서 진행 중인 ‘행운의 편지’ 주제전이다.

지난해 12월 17일부터 공개된 이아의 공간 잇기 프로젝트는 건물 1층에서 4층까지 이어지는 슬로프 공간에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방문객들이

이아로 진입하며 자연스럽게 관람할 수 있도록 꾸민 전시다. 이 중 2-4층 슬로프에는 여름방학 기간을 이용해 지난해 7-8월 가족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내가 가는 길’, ‘하나의 정원’ 참여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다. 당시 두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와 성인은 총 80명이 넘는다. 이 프로젝트 작품은 올해 연말까지 전시된다.

아트랩와산의 ‘행운의 편지’는 아트블랑켓(오택관×최영민)과 교류전으로 준비한 “선물 같은 전시”다. 경기도 수원원의 아트블랑켓 아카데미 회원과 운영진의 회화 작품 20여 점이 나왔다. 이 전시는 방문객이 관람 이후 마음에 드는 작품에 흔적을 남기고 원한다면 작가에게 직접 편지를 써서 보낼 수 있도록 했다. 해당 편지는 작가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진선희기자

문화가 쏙지

공연장상주 등 2차 공모

장애예술인에 창작준비금

제주문화예술재단이 8개 유형에 걸쳐 2022년 제주문화예술지원사업 2차 공모를 벌이고 있다.

공연장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은 예년과 달리 전액 지방비를 투입해 운영된다. 신규 공연단체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예비상주단체’ 분야를 신설했고 연속 3년 수혜단체인 경우 1년 휴식년을 적용하는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도 예고했다.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국제예술교류지원사업은 최근 5년간 2회 이상 실적증명으로 자격을 완화했다. 창작역량강화지원 역시 실적이 없어도 지원신청이 가능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공모 기간은 2월 4일까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지난해에 이어 장애예술인 창작준비금 지원 사업 공모에 나선다.

지원 자격은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장애예술인 또는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3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 실적이 있는 장애예술인이다. 지원 규모는 월 80만원씩 10개월간 7명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매월 예술활동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전년(5명, 월 100만원)에 비해 월 지원액은 줄었지만 인원은 늘었다. 접수 기간은 1월 27일까지로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장애예술인에게겐 행정서비스를 실시한다.



최민서의 ‘꿈꾸는 섬’.

제주 바다 돌고래가 전하는 새해 희망

이름갤러리 최민서 초대전
‘꿈꾸는 섬’ 이달 30일까지

제주에 정착한 지 올해로 10년째라는 서양화가 최민서. 2년 정도 머물 생각으로 집을 뜬 제주였지만 아직도 이곳에서 “일렁거리고 있다”는 최 작가가 제주에서 마주한 빛나는 손

간을 담아 새해 첫 작품전을 열고 있다.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름갤러리 초대전으로 지난 17일부터 진행 중인 ‘꿈꾸는 섬’ 주제 개인전이다.

그의 신작 안에는 바다에 솟은 섬을 배경으로 하늘과 바다를 유영하는 돌고래가 있다. 붉거나 푸른 색깔 사이를 오가는 바다를 누비는 돌고래는 신비한 느낌을 준다.

진선희기자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 그림에 담다

기담미술관 소장품 전시
‘함께합니다’ 등 소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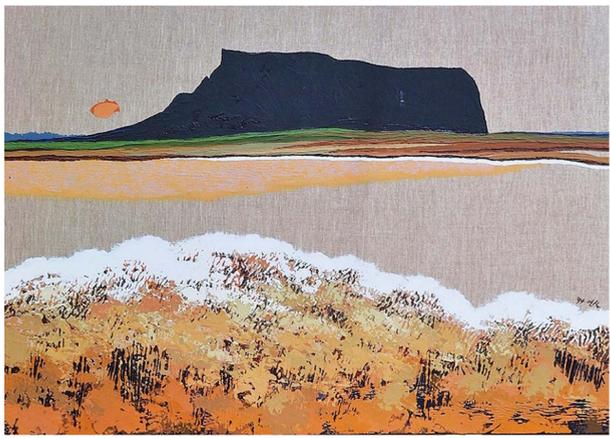
반복되는 일상 속 제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과 공간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고 있는 시절이다. 서귀포시에 있는 기담미술관인 기담미술관이 코로나19의 나날 속 소박한 하루를 꿈꾸며 소장품들을 꺼내 새해 새로운 전시를 펼친다. 이달 20일부터 ‘나의 소소한 일상’을 주제로 소장품전을 연다.

이번 전시는 ‘함께합니다’, ‘자리

합니다’, ‘좋아합니다’를 소주제로 꾸몄다. 지금의 나의 모습과 나와 함께하는 사람, 주변 공간에 대한 이야기와 자주 찾는 장소, 일이나 취미 등 관심사를 담아낸 작품들이 나온다.

전시 작품은 30여 점에 이른다. 강동연의 ‘상황’, 김명식의 ‘무제’, 김병중의 ‘생명의 노래’, 김선두의 ‘그리운 잡풀들’, 김연실의 ‘풍경-제주’, 김종학의 ‘숲’, 서세욱의 ‘사람들’, 허문희의 ‘자기만의 방’, 황유엽의 ‘목가’ 등이다. 전시는 5월 1일까지.

진선희기자



김연실의 ‘풍경-제주’.

수축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강병진
(하귀농협조합장)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대책을 적극 추진한 공로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장전 사촌형제 일동

수축상
CONGRATULAT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강병진
(하귀농협 조합장)

농업발전 유공 **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농업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귀농협 영농회장 협의회

당축선
CONGRATULATIONS

2022 한라일보 신춘문에 (시 부문)



김미경

2022 한라일보 신춘문에(시 부문)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시농협 삼양지점 오름동호회
회장 **고우성** 외 회원 일동

승축진
CONGRATULATIONS

부이사관



좌임철

부이사관(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장)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제주대학교 해양산업경찰학과
83동기회 일동